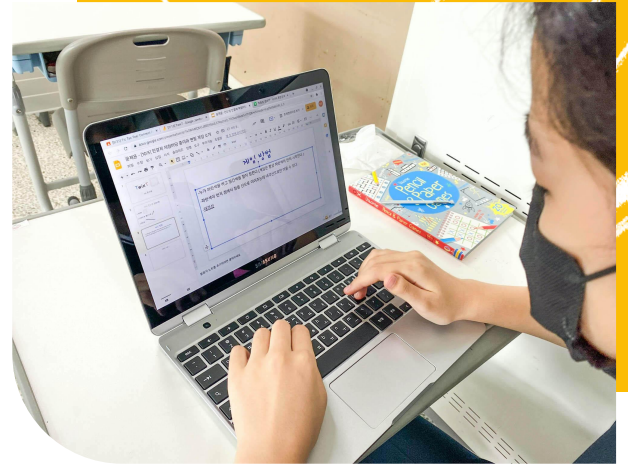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어려운 시기에

Google for Education으로 학생들에게 기회 제공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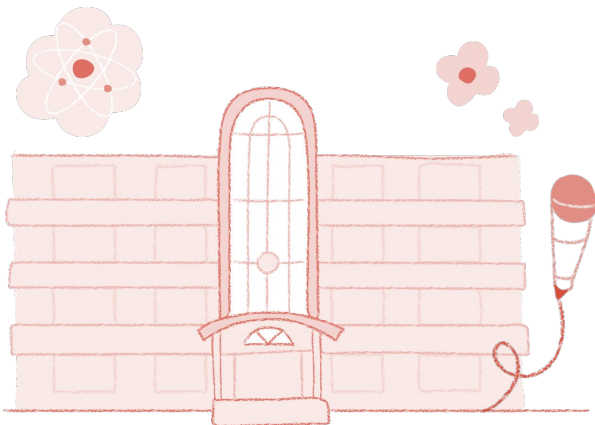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는서울대학교사범대학의부설학교4개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국립 여자 중학교로 교직원 50명과 전교생 400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습에 대한 즐거움은 물론,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협업 능력과 인성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배경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전부터 학교의 일부 교사들은 수업에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는 교사들이 이 툴을 쉽고 편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2020년 팬데믹부터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학교 차원에서 확장 및 도입했습니다.

학교는 합리적인 가격, 사용하기 쉬운 기능, 생산성 툴을 제공하는 [Chromebook](#)을 채택했으며, 교육부로부터 243대의 [Chromebook](#)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1, 2 학년 학생들에게 Chromebook을 각각 1대 씩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학교는 앞으로 교내의 모든 학생, 교사 및 직원들이 Chromebook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Chromebook은 [Chrome Education Upgrade](#)를 통해 관리되며, IT 관리자는 최신 보안 설정 및 관리 기능을 통해 도입 및 사용, 지속적인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전 과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며 학생 및 체험 중심의 교육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아야 했고,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해야 했습니다.

김연주 정보부장 겸 수학 교사는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학습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학교가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팬데믹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을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학교를 넘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독립적이고 협업 중심의 학습을 제공은 물론, 비대면 수업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해결 방안

학교는 [Google for Education](#)을 도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연결시키며, 무엇보다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

처음에 교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더해져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김연주 정보부장은 교사들을 위한 [Google Meet](#) 워크숍을 진행하며 [Google for Education](#)의 다양한 앱 및 기능 사용법을 실시간으로 시연했습니다. 더 나아가 IT 및 정보 부서를 위한 웹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가이드나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또한 서버 용량 걱정 없이 [Google Cloud](#)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온 오프라인에서도 자료를 쉽게 액세스하는 등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이 제공하는 장점들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점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는 교사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교사 한 명이 회의록이나 자료를 업로드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파일을 여러 버전으로 저장하고 다른 교사들에게 일일이 파일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오히려 [Google Doc](#)에서 실시간으로 공동작업을 하며 시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Google Drive를 통해 보다 쉽게 파일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뛰어난 호환성으로 다른 기기에서도 문서를 액세스하며 이동 중에도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 발견하는 학습의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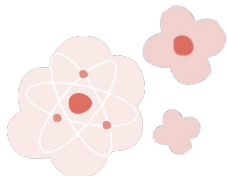
팬데믹으로 인한 물리적 제한과 비대면 수업은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생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및 교칙에 따라 학생들은 개인 기기를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는 Chromebook은 비대면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울인원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김연주 정보부장 겸 교사는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에는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없다”며, “Chromebook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손쉬운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며, 경험을 확장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Google Meet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수업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교사들은 [Google 클래스룸](#)을 사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합니다. 김연주 교사는 Google 클래스룸이 좋은 이유를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쉽게 볼 수 있고,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객관적인 평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며, “수업은 물론, 방과 후에도 학생에게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문화 형성

학생들은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으로 좋아하는 수업에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칠판에 낙서를 하며 놀듯, 이제는 [Google Jamboard](#)를 칠판 삼아 친구들과 낙서하며 놀입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퇴임하는 교사를 위해 롤링페이퍼를 쓰는 등 Google Jamboard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Google for Education으로 학습 경험을 넓힐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습에 기술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더욱더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Google for Education과 Chromebook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미래 학교의 바탕이 되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김연주,

정보부장 겸 수학 교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요약

불확실성의 시대에 Google for Education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중학교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학교는 2021년 11월부터 대면 수업이 재개되며 Google for Education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정보부장 겸 교사는 “학교는 아직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개성, 성향, 역량을 잘 키워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기술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은 각자의 색깔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학교의 틀을 넘어 배움이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김연주,

정보부장 겸 수학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Google for Education을 활용하여 학교의 가능성을 키우는지 edu.google.com/new-school 에서 더 알아보세요.